

평창올림픽 D-2 ... 북 예술단 본진 태운 만경봉호 목호항 입항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게 될 북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호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목호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2·20·21면 /
▶평창올림픽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 대표 조배숙·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민평당)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출범 2년 만에 분당됐다.

<관련기사 3·5면>

1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민평당은 추후 교섭단체 구성 등을 통해 원내에서 '케스팅 보트'를 쥐는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평당은 창당선언문에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다"며 "민생정치 실천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당제 기반의 합의민주주의 실현과 정치혁명에 앞장서겠다. 철저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대표로 추대된 조배숙 의원은 대회사에서 "보수 적폐 세력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성적표가 민평당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평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미래당을 확실하게 제친다면 정치적 활로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새로운 인물 영입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대변인은 민평당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호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민평당 바람을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평당이 6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개헌과 개혁 입법 등을 고리로 개혁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면서 '범여권·범진보'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 지자체 유치 경쟁

시설 노후·주차장 협소·도로 정체 불편... 2020년 착공 검토

광산구 "어등산 단지 적합"·나주시 "병원 부지 무상 제공"

전남대학교병원 신축이전 계획(광주일보 2월 1일자 7면)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병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6·13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자체장 선거출마 후보자를 중심으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6일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산구,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5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남대병원측은 애초 현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병원 본원과 바로 옆 의과대학 부지에 병상수 1004개, 수술방 30개 규모의 대형 의료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협소한 공간과 공사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병원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차량 정체 등으로 응급차량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근에 시장 등이 있는 응급실 앞 도로의 경우 상시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도 신축 이전설에 힘을 실어줬다.

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병원부지 대신 다른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축 병원 규모는 부지면적 6만 5883㎡(1만 9930평), 연면적 15만 8400㎡(4만 7916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최상의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한 병원시설과 협소한 주차장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보호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매년 노후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이 지출돼 병원재정을 악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도 전남대병원의 신축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구도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기점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은 300m, 기독교병원은 1km 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의료 인프라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 의료인은 "광주 도심이 수완·첨단지구 등 외곽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주요 병원은 구도심에 몰려 있다"면서 "전남대병원이 인

구를 많이, 전남권 환자는 물론 타지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면 의료 혜택 편중도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남대병원 신축이전이 현실화되면서 광산구와 나주시 등 인근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첫 포문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열었다. 민 청장은 지난 1일 제안문을 통해 "전남대병원 신축이전 부지 '어등산 관공단지'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어등산 관공단지는 광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국립 기반 공익시설인 전남대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얻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전남 서남부권과 혁신도시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호남선 KTX와 광주공항·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과 연결해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병원 부지 무상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나주시는 6일 "전남대병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이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병원측에 광주 남구와의 접경지 또는 혁신도시 내에 2만평의 신축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 3만명에 육박하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형 병원 유치가 시급하다"면서 "특히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에는 고속철 정차역이 있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으로 연결된 전남 중부권의 교통중심지라는 점에서 종합병원 입지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제안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이전에 지역사회 관심이 높은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 계획단계인 만큼 과열경쟁은 지양했으면 한다"면서 "병원 신축 문제가 자칫 갈등요인으로 부각돼 정치 이슈화할 경우 병원 신축 계획 자체가 자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2순환로 주변 아파트 못 짓는다

차전용도로·영산강 경계 등 금지 범위 50m→150m로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50m 이내 구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층 개발을 조건으로 시공업체가 설치해 시에 기부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입주자 전용인 경우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도 논의가 본격화된다.

6일 오후 LH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심포지엄'에서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가 발표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은 고층 아파트 개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층 주거지를 고층 주거지로 변경해 주는 중(種)상향과 관련 사전에 세부 점검 항목(Check List)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하면 이에 대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으로 변경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보도·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 또 아파트 용도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고층)을 준주거지역(초고층)으로 상향해주는 것은 원천 불허할 방침이다.

제2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된 후 소음 문제가 발생, 광주시가 방음벽을 설치해주면서 시민 열세가 남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구역으로 돼 있는 중 상향 금지 범위를 150m로 넓히고, 그 대상에 영산강·황룡강 100~150m 이내 구역을 추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근은 대부분 저층주거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중 상향이 안 될 경우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 짓기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고층 개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시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역시 ▲입주자 전용 기반시설 ▲사업승인을 위한 의무시설 ▲주택건설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법적 영향평가에 의해 추가 개설하는 시설 등을 인정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중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